



미국 · 캐나다 국외연수

4. 26. ~ 5. 5. / 8박 10일

- 행정 · 복지 · 안전 · 의회운영 등 선진자치 견학 -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

2015.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목 차

I. 연수개요	1
II. 방문국 정보	3
III. 연수 내용	7
① 워싱턴D.C. 소방서	7
② 워싱턴D.C. 어린이복지시설 (BOYS TOWN)	18
③ 캐나다 노인복지시설 (무궁화 한인요양원)	24
④ 토론토 시의회 및 시청 신·구청사	32
⑤ 토론토시 디스틸러리 디스트릭	36
⑥ 뉴욕주 나이아가라폴스 시청 및 시의회	38
⑦ 워싱턴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45
⑧ 뉴저지주 팰리세이프 파크 위안부 기림비	47
IV. 기타 도시문화체험 결과	49

- 행정 · 복지 · 안전 · 의회운영 선진자치 견학 - 공 무 국 외 활 동 결 과 보 고

I 연 수 개 요

- ☐ 기 간 : 2015. 4. 26.(일) ~ 5. 5.(화) / 8박 10일
- ☐ 연 수 팀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13명(의원 7, 공무원 6)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2명
- ☐ 연 수 국 : 미국, 캐나다
- ☐ 목 적
 - 선진미주 국가의 노인, 아동 등 복지기관과 지방의회 방문을 통해 각국의 다양한 복지정책 및 제도를 체험하고 벤치마킹하여
 - 우리 세종시에 적합한 재난관리, 행정복지 및 지방자치 선진화 등 행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 보고서 작성자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충열
- ☐ 연수 참가자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충열	
"	위 원	정준이, 김복렬, 박영송, 장승업	
산건위원회	위 원	김선무, 김원식	
의회사무처	처장 / 과장	장만희 / 민경태	
"	주무관	신을재, 강민정, 정용운, 이창모	
세종시청	주무관	주성만(복지), 강현규(청사)	

□ 주요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여 행 일 정	비 고
1 일 차 4.26.(일)	인천 (10:05)	뉴욕 (1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 출발(04:30) ○ 인천공항 도착(07:00) ○ 인천공항 출발(10:05) 	
2 일 차 4.27.(월)	뉴저지	워싱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싱턴 D.C. 소방서 방문 - 담당자 미팅 후 소방박물관 견학 ○ 워싱턴 어린이 복지시설 방문 - 담당자 미팅 및 시설 견학 	
3 일 차 4.28.(화)	워싱턴	헤리스버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참전용사기념비 등 문화탐방 - 국회의사당, 백악관, 링컨기념관 - 한국전 참전용사기념비 참배 	
4 일 차 4.29.(수)	헤리스버그	온타리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온타리오주 이동 - 온타리오호수, 월풀, 꽃시계, 수력발전소 등 	버스 5시간 이동
5 일 차 4.30.(목)	온타리오	토론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토 노인복지시설 방문 ○ 토론토 신·구청사 방문 - 의회제도, 청사관리 - 디스틸러리 디스트릭 (양조장구역 도시재생) 	
6 일 차 5.1.(금)	온타리오	시러큐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욕주(나이아가라폴스) 시티 - 자치제도, 의회운영 	
7 일 차 5.2.(토)	시러큐스	뉴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욕으로 이동 - 우드버리 아울렛 	버스 6시간
8 일 차 5.3.(일)	뉴저지	뉴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욕문화 탐방 - 워싱턴광장, 유엔본부, 자유여신상 - 하이라인 파크 공원화 성공사례 	
9 일 차 5.4.(월)	뉴욕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저지 펠리세이더스파크(자치구) - 의회 운영 - 위안부 기림비 방문 ○ 뉴욕공항 14:00 출발 	
10 일 차 5.5.(화)	인천	세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 도착 (17:20) ○ 세종시 도착 (21:00) 	

II

방문국 정보



미 국	구 분	캐 나 다
		
3억 18백만명 (세계3위)	인 구	3,483만명 (세계37위)
9,826,675km ² (세계3위)	면 적	9,984,670km ² (세계2위)
워싱턴D.C.	수 도	오타와
영어	언 어	영어, 프랑스어
개신교 51.3% , 카톨릭 23.9%, 기타	종 교	로마가톨릭 42.6%, 개신교 23.3%, 기타
18조 1,247억불 (세계 1위)	GDP	1조 6,155억불 (세계 11위)

① 미국(USA)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래, 유럽 강대국들의 식민지였던 미국은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비로소 13개 식민지를 '주(州)'로 하는 미합중국을 탄생시켰다. 현재는 본토의 48주에 알래스카 및 하와이를 합친 50주, 그리고 콜럼비아 특별구(수도 워싱턴)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연방공화국이다.

○ 인 종

미국의 인종은 지구상의 민족과 인종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복수 민족국가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인종은 83%인 백인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외의 유색인종은 흑인이 14%, 인디언과 동양계가 약 5%가 된다.

○ 정 치

1776년 7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은 현재 대통령 중심제의 연방공화제 체제이며 현재의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Barack Obama)이다. 의원제도는 상원과 하원의 2원제로 상원의원은 정원이 100명으로 각 주에서 2명씩을 선출한다. 임기는 6년이고 2년마다 30%정도가 개선이 된다. 하원의원의 정원은 435명으로 각 주에서 주의 인구비례로 선출해서 2년마다 전원 바뀌게 된다.

○ 경 제

광대한 국토와 자연을 가진 미국은 대부분 평지가 넓고 온대기후여서 자연조건의 혜택을 받은 세계적인 농업지대이다. 그리고 남북전쟁 후의 공업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기계화 농업이 발달되고, 이것이 미국의 농업국가된 바탕이 되었다.

② 캐나다(CANADA)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이며, 전체 면적이 9,984,670km²에 달하는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토의 40%는 춥고 고립된 북극 지방으로, 원주민인 이누이트족 외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다. 국토가 너무 넓어서 지역마다 서로 다른 시간대를 사용하는데, 태평양 연안·산악 지역·중양부·동부·대서양 연안·뉴펀들랜드 지역으로 나뉜다. 캐나다의 수도는 연방 정부가 있는 오타와이지만, 제 1의 도시는 토론토이다. 열 개의 주와 세 개의 자치주에도 각각 연방 정부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 정부가 있다. 전체 인구가 약 3,430만 명으로 인구 밀도가 매우 낮아 세계적으로 인구가 적은 나라 중 하나이며, 그중 약 80%인 2,500만 명 이상이 남동부의 도시에 거주한다.

○ 지 형

캐나다는 한반도의 45배나 되는 국토를 가진 나라이지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은 미국 국경을 따라 약 300km에 남북동서에 띠모양으로 뻗어 있는 지역으로 극히 한정되어 있다. 북쪽으로는 한대림과 아름다운 빙하호군, 위로는 툰드라와 극지방이 이어져 있다. 해안선이 복잡한 서쪽 태평양 연안쪽은 캐나다인 록키산맥과 맥켄지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있는 고산지대이다. 중앙에는 캐나다인 록키의 동쪽기슭에서 대평원이 시작되어 많은 빙하호가 산재하여 있다. 동부는 허드슨만을 에워싼 넓은 대지가 동쪽의 대서양 연안까지 구릉 지대를 이루고, 북극해로 이어지는 북부는 변화가 많은 해안선과 크고 작은 여러 섬이 있는 미개척 지역이다.

○ 언 어 (영어 62%, 불어 12%)

캐나다는 각 민족들이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권을 지켜가고 있는 다민족 국가이다. 전체 인구의 약 70%를 영국계와 프랑스계가 차지하고 있다. 공식 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이며 주민의 81%가 프랑스계로 이루어진 퀘벡주를 제외하고는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종교는 로마 카톨릭과 영국의 프로테스탄트교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10개주와 2개의 준주로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다.

○ 교육제도

캐나다의 모든 교육 정책은 주 정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각 주마다 초·중·고등학교 체계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초등학교는 5~8학년, 중학교는 6~9학년, 고등학교는 10~12학년으로 주마다 다양한 과정으로 구분된다.

어떤 주에서는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정해진 학년제 대신 학생의 개성에 따라 과목별로 진급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의 학교는 90%가 공립으로 중·고등학교까지 학비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교과서·체육복·문구까지 무료로 지급되지만, 사립 학교의 학비는 상당히 비싼 편이다.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사회 문제나 정치에 대해 토론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도록 교육 받는다

III

연수 내용

1 워싱턴 D.C. 소방서 (Fire and EMS Engine 3, Washington D.C.)

[방문개요]

- 일 시 : 2015. 4. 27.(월)
- 장 소 : 439 New Jersey Ave N.W. Washington D.C. 20032
- 면담자 : JIM (Fire House Director) 소방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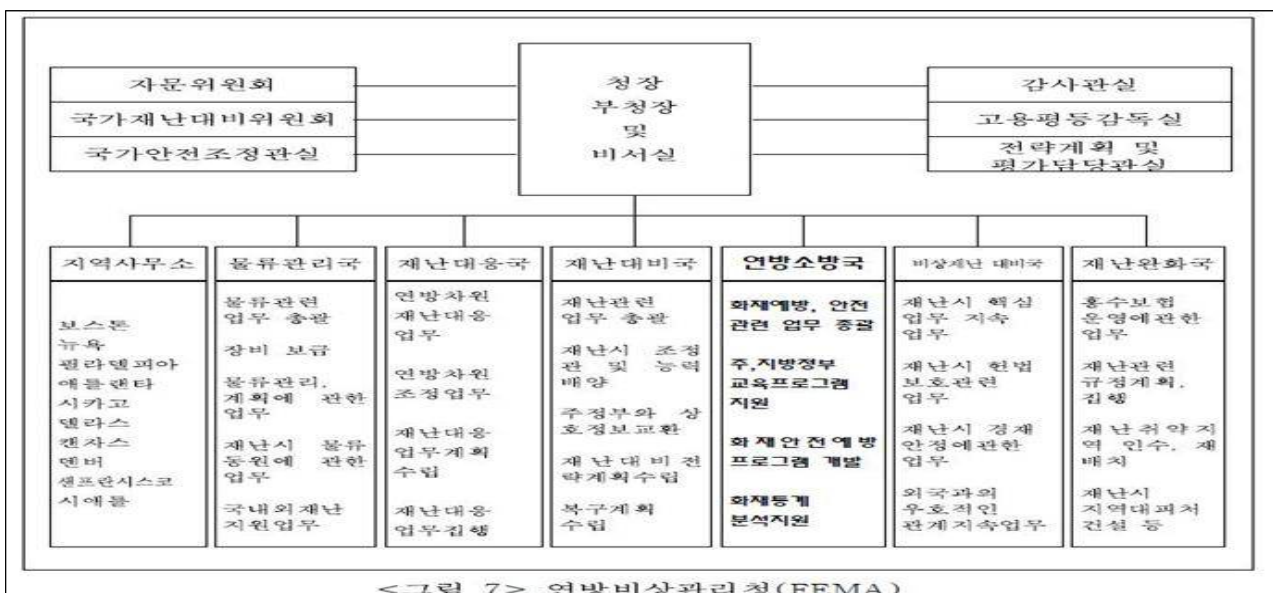
□ 주요내용

1. 미국 소방조직 현황

가. 미국의 재난 대응

(조직체계)

- 연방위기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은 각 부처의 역할을 총론적으로 담고 있는 연방재난대응계획(Federal Response Plan)을 개발하여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원동원을 총괄하고 연방정부기관의 비상대응 정책과 재원을 지위 조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의 재난지역선포가 발효되면 FEMA에서는 각 연방부처별로 임무를 배포하고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대하여 기술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며 소방·경찰 등 재난관련 모든 기관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FEMA 성립배경)

- 초기 FEMA 설립 이유는 미국은 매년 지진, 폭풍, 홍수, 대규모 테러 등 대규모의 자연 및 인위재난의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거나 피해강도가 지방정부 수준의 대응능력을 벗어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되어 이에 대처할 효과적인 대응조직이 필요하여 설립되었다. 또한 연방정부 내에서도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던 재해재난에 관련된 각종 책임과 임무를 통합할 필요가 있었으며, 연방비상관리청의 임무 및 기능은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과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자원동원을 총괄하고 광범위한 재난계획, 재난대비, 피해경감, 복구활동시 주와 지방행정기관을 지원한다. 그밖에 재해에 대한 예방, 주·지방행정부 공무원의 전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교육·실습 등을 담당하고, 국가 홍수보험사업, 국가지진재해경감사업, 전국비상식량 및 대피기구의 의장기구의 역할 등을 담당한다.

나. 미국 소방의 연혁

(연혁과 역사)

- 미국의 조직소방은 1676년 보스턴에 대화재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형성되었는데 이때의 소방대원은 겨우 13명에 불과했으나 이 소방조직이 미국 의용소방대의 선구가 되었다. 1737년 필라델피아에서 조직된 유니언소방대는 화재발생시 크게 활약하여 시민들의 커다란 힘이 되었고 1861년 일어난 남북전쟁을 계기로 주요 도시의 소방조직은 점차 상비소방제도로 이행되어 오늘날의 자치소방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연방정부는 소방제도의 운영 면에 거의 관여하지 않고 도시소방국은 시장 관할 하에 있으며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외에 구급업무까지 겸하고 있어 화재 예방에 대한 역사도 오래되어 1896년 미국 방화협회를 설립하고 각종 소방기준을 작성하였다.

다. 미국 소방의 지위

- 미국 소방청(USFA)은 연방위기관리청(FEMA)내 하나의 이사로서 지위를 누리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화재안전과 예방을 위하여 국가의 지도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화재와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노력을 지원해 주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걸쳐 기존의 화재진압과 대응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다.

라. 미국 소방의 임무

(공공교육)

- 다른 연방기관들과의 협력 하에 화재예방과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다.

(교육훈련)

- 화재 및 긴급 재난 대응 전문인을 양성한다. 긴급대응집단 및 그들과 연합한 전문가들의 전문 직업 개발을 증진시킨다. 주정부나 지방정부 소방서비스 훈련 프로그램을 보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연방소방학교(NEA)와 긴급재난관리소(EMI)가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교육과 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실시한다.

(기술)

- 파트너십을 통하여 연구, 실험, 평가 등을 수행하여 화재 예방과 생명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단체들과 공공활동을 벌인다. 화재 탐지, 진압, 경보시스템 및 화재 긴급 대응자 건강 안전에 관한 연구와 특별 탐구를 한다.

(정보 및 자료)

- 모든 종류의 화재의 발생, 통제, 결과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 배분, 평가를 통하여 주정부나 지방정부 소방조직을 지원한다.

마. 미국 국민의 소방에 대한 인식

- 미국에서의 소방관은 영웅 대접을 받는데 매년 어린이들 장래희망 설문조사에서 고정 1위를 나타내고, 직업만족도와 행복 지수에선 전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또한 독립기념일 등 큰 행사가 행해질 때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도시마다 퍼레이드가 이루어진다. 항상 퍼레이드를 이끄는 선두 차량은 소방차이다. 소방관이 아이들을 태우고 행렬을 하면 모두가 박스를 치며 반갑게 맞아 준다. 미국인들이 이처럼 소방관에 대해 애정을 표시하는 이유는 직종의 특성상 숙명적으로 사회를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때로는 생명까지 걸면서 구조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대의 도시인 뉴욕은 항상 사건 사고가 많다. 그러다 보니 소방관이나 경찰의 순직 사고가 1년에 몇 차례나 발생한다. 이런 사고가 있는 다음날 뉴욕 타임스에서는 공무중 순직한 소방관이나 경찰에 대한 조의를 표의하는 기사를 게재한다. 극단적인 스토리가 있는 사고가 아니라도 숨진 경찰관이나 소방관에 대한 기사를 상세하게 보도한다. 공무 중 순직한 소방관이나 경찰관에 대해서 지면으로 최대한 예우하는 전통을 지켜오고 있다. 또한 희생된 뉴욕 소방경찰과 소방관 장례식에는 예외 없이 뉴욕 시장이 참석한다.

2. 한국과 미국의 소방 비교

(소방정책의 비교)

- 한국은 국가주도적 소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조직에 유연성을 불어넣는 개방형 공무원 제도의 도입과 팀제의 운영으로 국가 중심적 거버넌스에 접근하고 있고,
- 미국은 연방정부가 국가 전체적인 재난과 연계된 소방행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효적인 소방정책은 주정부에 일임하고 있으며, 화재 및 재난시 1차적인 책임과 조치는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유연한 소방거버넌스 구조를 갖고 있다.

- 과거의 소방활동이 화재예방, 경계 및 진압 등 소극적인 소방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주력했다면, 현대소방은 동물보호, 생태환경보호,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복지 영역 등 국민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적극적 소방활동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
- 이에 급변하는 사회와 점증하는 주민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거버넌스가 바탕이 된 소방행정과 정책이 향후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소방조직 체계)

- 한국은 중앙과 지방으로 나뉘고, 중앙은 국민안전처 산하에 중앙소방본부를 두고 소방 및 안전관리 사무를 관장하며, 지방은 광역자치 소방체제로 전환되면서 시·도 단위 소방본부를 두고 있다. 소방관서는 소방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무소방대를 설치·운영하고 민간조직으로 시·도 조례에 따라 무보수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은 화재진압, 화재예방, 구조 및 구급활동 등의 임무를 지고 있다.
- 미국 소방조직은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로 구분된다. 연방정부는 전국의 소방정책을 재조정하고, 화재예방과 방화 및 통제계획을 지도·감독하며 광범위한 소방자료를 관리·분석한다. 주정부 소방조직은 50개 주마다 소방본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정부의 소방법을 근거로 자치단체 소방업무를 직접관할 하며, 지방자치단체(시, 카운티)는 지역특성에 따라 소방서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소방정책 및 소방거버넌스)

- 미국의 소방정책은 5개 정책목표로 귀착되는데,
 - ① 화재예방과 완화로 지역위험을 축소
 - ② 지역계획과 재해 및 소방에 대한 대비를 개선
 - ③ 위험 복구와 대응을 위하여 소화와 긴급서비스 능력 향상
 - ④ 소화와 긴급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향상
 - ⑤ USFA(소방행정청)이 전국의 소방과 긴급서비스를 선도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한국은 중앙소방본부가 정책을 수립하면 시·도 소방본부가 움직이는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고, 국가중심적 소방거버넌스에 접근하고 있으며, 미국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주민, 기업들간에 수평적인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고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워싱턴D.C. 소방서 연수결과

(현 황)

- 우리가 소방서를 견학하게 된 것은 세종시가 행정도시로서 안전 도시를 지향하고 2018년 세계안전도시인증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의 중요한 정책과제 이기에 첫 방문기관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 워싱턴D.C.는 인구 100만명이 도시로, 수도인 만큼 독립된 소방 조직을 갖추고 있고 33개의 지구소방대가 운영되고 반경 4Km 범위내를 관할하며, 소방공무원은 9천여명이 종사하고 4교대 근무로 충분한 소방력을 갖추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원봉사자 운영 및 병원)

- 미국내에서 대부분은 자원봉사자(Volunteers)로 운영하나 워싱턴D.C.는 자원봉사자를 사용하지 않고 세계적인 정치일번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원이 확실한 공무원만을 쓰고 있으며, 소방관 전문병원은 없고, 경찰병원을 같이 이용한다.
- 역사와 전통을 소중히 하는 미국의 워싱턴 소방서는 1916년 건립된 3층의 낡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3층에는 소방박물관을 운영하여 소방도구, 소방복, 소방모, 1904년 소방공무원들의 사진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에게 소방의 역사와 소방공무원의 역할, 희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방문기관의 기념품을 보관 전시하고, 기념품이나 선물은 공적으로 전시 관리한다.
- 또한, 9.11테러로 순직한 소방관 343명을 추모하는 추모비와 방명록, 헌금함을 비치하여, 방문객들로 하여금 희생자를 추모하고 인명의 소중함과 희생자들을 기리는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성금을 내면, 전액을 소방가족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이다.

(소방대응 및 훈련)

- 9.11테러 이후 소방채널을 통일하여 A마을의 화재발생시 B마을 까지 모두 방송되어, 주민이 상황유지 및 대피가 용이하며, 미국의 학생들은 소방훈련의무화로 매월 1회 소방훈련을 하며, 학생들은 수업 중 경보발생시 모든걸 둔채 우선 대피하는 훈련을 하며, 인명의 소중함을 배운다. 또한, 모든 소방서는 뉴시스템으로 교체하였고, 소방관은 EMS(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소방과 응급구조를 병행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처우)

- 9.11테러 이후 소방관에 대한 인기가 높아 졌으며 소방관이 순직 하였을 경우(워싱턴) \$214,000가 사망 시 지급되며 일시불로 100%의 월급이 지급되거나 70%의 주급이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최대 \$2,000까지 장례비가 지원되며, 연금 혜택의 경우 배우자에게 월 \$1,688, 18세 미만 자녀에게는 \$145이 지급된다.

<참고> 질의 및 답변

[물음 1] 워싱턴 소방서 관할현황 및 조직은?

☞ 소방차 2대(소방차 당 대원 12명, 2교대 / 구급차 1대(구급차 대원 4명, 2교대)

관 할 면적(km ²)	관 할 인구(명)	소방공무원(명)	소화전(개)		조 직
			지상식	지하식	
177	658,893	2,130	9,400		센터 (과 포함)

- * 소방대상물(개) : 소방서 관내에 있는 아파트, 공장, 관공서, 숙박시설, 병원 등 관리하고 있는 관할 내 시설임.
- * 워싱턴D.C. 소방서는 33개 소방서가 관할하며 소방대상물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건물주 민간 자율관리체제임.

※ 세종시 소방공무원 현황 (인구 19만, 면적 465km²)

- 인력현황 : 총 182명(소방직 152, 의무소방 30)
- 조직현황 : 본부 2과, 1 대응단, 5 안전센터, 1 구조대, 8 지역대

[물음 2] 모든 재난발생 신고가 911로 일원화 되어 있는가? 또한 911신고 접수 상황실에 응급의료인이 근무하고 있는가?

☞ 모든 재난발생 신고는 911로 일원화 되어 있으며, 911 콜센터에서 디스패치를 통하여서 적합한 부서로 연결이 됨. 상황실은 연결 센터로 응급의료인은 근무하고 있지 않지만 훈련을 통해 기본적인 응급의료 지도 서비스가 가능함.

- * 대한민국은 모든 재난신고는 119 접수 → 재난 관할 기관 통보 → 출동조치를 하며, 상황실에 응급의료인 24시간 상주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지도 서비스를 시행

[물음 3]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 중 부상자 및 질병에 대하여 치료를 할 수 있는 소방전문병원이 운영되고 있는가?

☞ 워싱턴 소방서 역시 국립병원과 협력하여 소방공무원 진료와 치료를 하고 있음.

* 대한민국은 현재 소방전문병원이 없으며 국립경찰병원과 협약을 통하여 소방공무원 진료 및 치료를 하고 있음.

[물음 4] 구급대원 등 소방공무원 공무집행시 폭행피해에 대한 조치는?

☞ 미국에서는 시민의식이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 손괴 행위는 상상도 할 수 없으며 거의 발생하고 있는 일이 아님.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강력한 법적 조치가 뒤따르게 될 것임.

* 대한민국은 현재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 손괴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 부과하며 모든 구급차에 CCTV설치 및 폭행방지에 대한 홍보 캠페인 등 실시함.

[물음 5] 소방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이 직접 건물을 방문 소방점검을 다니는지?

☞ 일년에 1번 건물 관계인이 점검요청을 넣어 점검을 받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음.

* 대한민국은 소방시설이 설치된 건물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책임하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이 전체 대상의 약 5%로 범위에서 표본추출 직접방문 소방시설점검을 하고 있으며 불량사항은 시정명령을 발동함.

□ 시사점 및 교훈

- 우리 세종시는 정부청사가 밀집된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갖는 특수성을 고려할때 안전도시를 지향하고 있어 조속한 국제안전도시 인증과 예정지역 소방서와 중북부 소방서 체제를 조기 구축하여 단층제의 특성도 반영된 소방재난 대응체제를 완비할 필요가 있다.
-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119라는 안전시스템과 가장 강하게 연결되어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소방을 중심으로 한 사전 안전교육 강화를 통하여 안전학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소방력도 3교대 체제에서 4교대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워싱턴D.C. 소방서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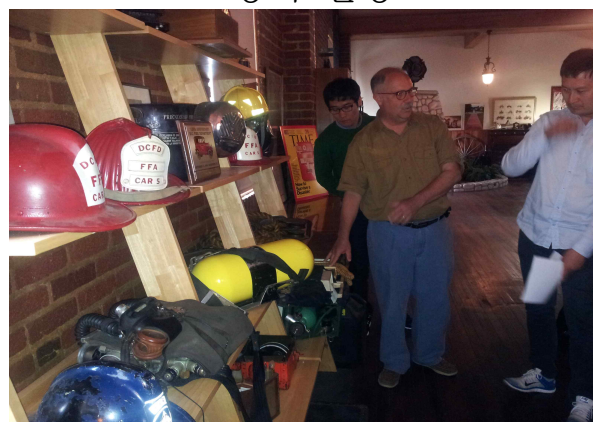
소방서 방문기념



소방서 설명



소방복의 역사



안전용품 전시

② 워싱턴D.C. 어린이 복지시설 (BOYS TOWN)

[방문개요]

- 일 자 : 2015. 4. 27.(월)
- 장 소 : 3801 Sargent Rd. NE. Washington D.C. 20017
- 면 답 자 : BOYS TOWN 책임자 - Anne Derby

□ 주요내용

1. 미국의 아동복지제도

(아동복지정책)

- 미국의 아동복지는 부모와 아동관계 해소를 위해 지지적 서비스(supportive service)¹⁾, 부모의 역할을 보완해주는 보충적 서비스²⁾, 부모의 역할을 대리해 주는 대리적 서비스³⁾가 기본체계를 이룬다.
- 아동복지정책과 관련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사회복지 재원조달은 일반예산에서 충당되며, 연방정부는 재원이 의회가 결정한 세율에 따른 개인소득에서 나오고, 주정부의 경우는 주정부 소득세 및 판매세에서 나오며, 지방정부는 재산세와 교육세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 민간부문의 재원조달은 주로 독지가나 종교단체의 기부금에 의존하였는데, 요즘은 정부보조금과 위탁사업을 통한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다.
- 미국의 아동 복지정책 재원은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나 점차 복지의 민간부문에 대한 활성화, 즉 민영화의 움직임이 더욱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기본적인 생활안정과 관련된 부문은 여전히 정부의 책임이다.

1) 지지적 서비스는 가족중심 서비스로서 가정 내에서 아동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지적 서비스에서 전제로 하는 것은 안전하고 정이 있는 가정이 되도록 가족을 도울 경우에는 가족이 아동발달에 가장 좋은 환경이 된다는 것이다.

2) 부적절하거나 제약적인 부모의 보호를 보상하면서 아동이 받을 보호를 보충해주는 서비스

3) 부모의 역할 전부가 상실되었을 때, 아동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Ex. 입양, 위탁가정, 시설보호)

(요보호 아동 보호제도)

- 미국은 아동학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연방정부에서 목표를 설정 한 후, 주정부에서 그 목표를 지역육구에 부합하도록 해석하고 수정을 하면 현정부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 공공 아동복지 기관, 민간 비영리 기관 및 영리 기관에서 아동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된 사례의 선별·접수, 조사, 위기 개입, 정보제공, 의뢰, 배치, 사례계획, 사례 모니터링 등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불분명한 신고는 어느정도 걸러내고, 사실조사를 거치게 되며, 이 후 사례가 입증되면 필요에 따라 자원봉사 서비스, 가정 내 지원, 가족 외 보호 및 영구적 보호 계획 등의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되며, 가장 우선적으로는 가정 복귀를 지원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입양, 후견인의 대안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장기위탁보호를 맡기는 체계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 미국의 요보호아동 보호정책은 부양가족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예방 서비스의 부족, 많은 아동들이 가족으로부터 분리, 수년간 가족복귀율에 변화가 없으며, 높은 재발율, 입양율의 불균형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현재의 아동복지 제도는 대폭적인 수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2. BOYS TOWN

(운영개요)

- BOYS TOWN은 미국전역 중 플로리다, 노던아일랜드, 루이지애나주 등 8개주 인구밀집지역에 법인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워싱턴D.C. 보이스타운은 정부에서 보조하는 개인소유의 단체이며, 다른 보이스타운은 개인에게도 기부를 받고 있다. 보이스타운은 위기 가정의 문제, 청소년과 가족의 돌봄 케어기관으로 가정의 위기 등급별로 하이레벨, 미디엄레벨 등 구분 운영되며, 문제아의 경우 가정에서 치료할 수 있는 레벨도 있다.
- 우리가 방문한 워싱턴D.C.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BOYS TOWN의 경우, 13세~17세의 결혼 가정의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게 되면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거나) 재판결과에 따라 교도소나 보이스타운에 보내지며, 보이스타운 내에서 아이들과 가정에 대한 모든 교육을 실시하는데 3~6개월 합숙 케어 한 후 4단계로 교육 후 복귀하는데 교육후 보통학교로 돌아갈 때 학교적응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워싱턴D.C.보이스타운 연수결과)

- BOYS TOWN은 62명의 스테프 직원이 있고 이중 32명이 26명을 케어하고 있고 정부가 요구하는 시스템대로 매뉴얼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엄정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선발·고용된 5쌍의 부부교사가 학대나 범죄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문제아동 26명 (가구당 6명 정도)과 공동생활을 하며 문제 아동들을 일반학습부터 하이레벨 교육까지 친부모처럼 가정생활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 BOYS TOWN의 부모교사는 1년에 6만불의 급여와 집, 음식 등을 제공받고 부모는 25세에서 40세까지로 1년이상 결혼생활을 하고 자녀(2명)를 둔 부모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사이가 좋은 모범적인 부모들로 무려 20:1의 경쟁률을 뚫고 선택된 사람들로 구성된다.
- BOYS TOWN은 100% 정부보조를 받고, 아동 1인당 하루 300불의 비교적 높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기부로 조성된 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부모교사는 아이와 함께 생활하면서 기준을 준수, 교육, 대화와 토론 및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세미나도 하고 경험을 나누면서 끊임없이 더 나은 부모이자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 이혼부부 자녀중 부모가 양육을 거부하는 경우 입소전에 친척이나 조부모를 찾아 정부보조금 지원을 통해 가족 스스로 양육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시설 입소를 결정한다.
- 대상은 13~17세 아동으로 남·녀가 구분되며, 학교는 일반학교를 다니며, 스쿨버스로 보이스타운으로 통학한다. 저녁식사는 가족처럼 같이하며, 학교와 가족문제를 여기서 상담하는데 거실은 주로 남을 배려하는 교육장소로 이용된다.
- 이들이 주력하는 부분은 커뮤니케이션이다. 결혼 가정의 아이들(특히 거리의 아이들)은 온건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지 않고 바로 힘, 언어폭력 등에 기대는데 부모교사는 끈기있게 가르치고 점수로 통제 하면서 아이들을 좀 더 쓸모있는 사회인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 부모교사는 부모이자 교사이다.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삶의 여러 지침들을 가르친다.

- 미국의 정상가정과 같은 일상생활(자기방 청소, 거실청소, 음식 만들기, 쓰레기배출, 세탁 등) 에서부터 진로 교육, 학습 활동 등을 부부교사 지도하에 아동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 체계적인 지도·관리가 이루어 진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소속감과 신뢰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갖게 된다. 시설입소는 18세까지만 인정되며, 18세가 넘으면 독립하고 퇴소하며 이때부터는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복지체계에 흡수된다.
- 미국에서는 1910년대부터 계속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들여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의 악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사회의 톱니바퀴로 바꾸어 최종적으로는 오히려 사회의 비용을 줄일 수 있기도 하거니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자신이 쓸모 있는 인간이라는 자각과 타인과 깊이 교류한다는 존재감으로 아주 높은 질의 행복감을 갖고 있다.

□ 시사점 및 교훈

- 우리 세종시의 경우 위기에 처한 아동, 청소년의 소규모 생활공간으로 결손 아이들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인 ‘행복한 우리집’이 있었으나, 아동방임 등의 사유로 폐지되었고 지금은 누리그룹 홈이 운영되고 있다.
-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경중과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단계별(레벨)로 철저한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충분히 이루어 진다는 점을 볼 때 우리나라는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고 우리도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워싱턴D.C. BOYS TOWN 방문



보이스타운 방문



부부교사 및 아동가정 거실



부부교사 및 아동가정 주방



기관현황 청취

③ 캐나다 노인복지시설 (무궁화 한인요양원)

Rose of Sharon Korean Long Term Care home

[방문개요]

- 일 자 : 2015. 4. 30.(목)
- 장 소 : 17 Maplewood Avenue Toronto, Ontario M6C 4B3
- 면담자 : 정민화(Helen jeong) 원장

□ 주요내용

1. 캐나다 사회복지정책

(복지발달 배경)

- 캐나다 의료보험의 고용복지제도는 세계최고로서 의료비가 전액 무료이고 직장해고나 감원시 종전에 받던 봉급의 60~70%가 실업 보험으로 지급되며 구직을 못해도 나이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이 세계최고의 선진국이다.
- 광대한 국토와 풍부한 자원, 막대한 세금을 국민들로부터 받아 누구에게나 동일한 의료, 교육, 경제, 사회적인 권리 등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복지를 제공하고 있고, 모든 국민에게 경제적으로 최저생활보장, 의료서비스 제공,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며, 연금제도를 활용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노년 생활을 보장해 주고 있다. 이는 자국민들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 사람을 최우선으로 여겨 누구나 존중받고,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캐나다 국민성이다. 이러한 국민성을 바탕으로 캐나다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이들을 배려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었고, 이에 맞춘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주요 사회보장제도)

- 캐나다는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가 함께 부담하는 의료보험제도가 잘 발달되어 거의 전 치료비를 부담하여 고령이 되어서도 치료비 부담 없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방정부의 의료보험 재원은 세금 및 보험금, 그 외 입원 시의 규정 실비 등에서 충당한다.
- 캐나다에서 보건 및 노인복지 문제의 일차적인 책임은 주정부에 있으며, 연방정부는 이러한 주정부를 지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캐나다 연금제도(CPP, Canada Pension Plan)이다. 캐나다 연금제도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공히 수입의 5.85%씩을 적립하여, 퇴직(60세 이상) 후에는 월평균 수입액의 25%를 매월 수급하도록 되어 있다.
- 그 다음으로는 노령연금(OAS, Old Age Security)이 있는데, 이는 일정 요건(연금 수혜 개시 10년 전부터 캐나다에 거주)을 갖춘 65세 상의 노인에게 매월 일정 연금이 연방정부에 의해 지급되는 제도이다.
- 기타 복지로 캐나다는 18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 사회보장제도로써 보훈연금, 실업수당 등을 유지하고 있다.

2. 캐나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운영개요)

- 캐나다에서 노인입소시설은 nursing homes, special care facilities, home for special care, personal care homes, residential care facilities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캐나다 노인복지시설 입소는 미국보다 높으며 캐나다가 상대적으로 노인입소비율이 높은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광활한 땅을 가지고 있지만 인구는 대한민국 인구보다 적고, 길고 추운 겨울, 노인의 병원접근 어려움, 계속적인 보호 필요성, 비공식 보호자가 적고, 빈곤 등을 원인으로 들고 있다.
- 연방정부는 입소노인에게 제공되는 보호의 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각 주에 할당하고 있으며, 보호의 정도에 대한 주별 분류 기준은 통상 4단계로 나누고 있다.
- 캐나다는 입소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물품을 관리하는 권리,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을 권리,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권리 등 세가지 기본권리를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 입소자 어르신 권리장전을 제정하여 철저히 입소 어르신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입소시설은 입소한 노인들이 가능한 최대한 사회생활과 유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원칙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 (첫째) 입소자가 일상생활에 리듬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 (둘째) 입소자는 입소생활에서 일반적인 존중을 받아야 한다.
 - (셋째) 가능한 일상적인 사회생활과 같은 여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 (넷째) 자금(돈) 사용여건 제공, 사진과 가구 등 물품 보관과 애완동물허락, 매주 종사자 회의를 통한 업무개선 노력 등을 하여야 한다.

(노인입소시설의 종류·입소절차 등)

- 노인을 위한 주거시설은 크게 독립주거와 입소보호로 구분하고 있는데, 독립주거는 주거형태에 따라 완전한 독립 주거, 생활지원 주거, 보건지원 주거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국의 허가가 필요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다.
- 입소보호시설은 24시간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보호하는 시설로서 입소절차는 거주자가 살고 있는 관할 보건사무소 한곳에서 가정서비스, 주간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특수서비스 등 노인이 필요한 모든 종류의 서비스에 대하여 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접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노인 주거지 관할 보건소에 소속된 사회복지사의 평가와 입소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공입소시설의 입소여부가 결정된다.
- 캐나다는 입소기준과 절차를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대기자 명단에 따라 오래 기다린 자를 우선 입소시켰으나, 이제는 장기요양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자를 우선 입소시키고 있다.
- 입소시설의 입소비용은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민간영리업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월 \$1,650 ~ \$4,050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하며, 대부분이 지역보건당국의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들로 주정부의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었다.

3. 온타리오주 무궁화 한인요양원 연수결과

운 영 현 황

- 병 동 : 3개 병동, 병동당 20개 총 60병상
- 입소정원 : 60명(현재 136명 입소대기 중)
- 재 정 : 총예산 \$4,000,000(정부보조 \$3,000,000)

- 입소자 60명전원이 한국계이며 직원들도 한국어를 사용하여 입소 노인들은 한국의 정서를 느끼며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고 시설은 중간치료와 장기치료를 겸한 시설이나 사실상 양자의 구분이 없이 수용하고 있다.
- 24시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병인, 요양보호사가 상주하며, 촉탁의사는 주1회 방문하여 진료를 하고 있으며, 특이한 점은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은 반드시 보호자,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의 안내를 받아야 하지만 무단으로 시설 외부로 나갈 경우를 대비하여 엘리베이터나, 출입구 등에 자동인식 장치가 설치되어 완벽한 보호를 하고 있으며, 노인의 건강과 신체상황에 따라 목욕서비스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 또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외에 한국인 정서에 맞는 음악활동, 단오제 행사, 나들이, 한국음식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소 노인들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1인실과 2인실을 사용하며 거주하는 방엔 애장품이나 본인과 가족의 사진들이 진열되어 있다.
- 무궁화 요양원은 캐나다 현지교포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설립된지 4년이 되었으며 요양원은 개개인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특성있는 3개 병동으로 나뉘고 각 병동당 20병상씩 총 60병상을 갖추고 있다. 병실은 일반병실과 특실 등 2종류이고 간호사 호출 시스템, 휠체어사용도 가능하며, 화장실 등 시설이 우수하고,

부대시설도 병동마다 프로그램과 가족친지들이 활용 가능한 다목적방과 예배당이 있다. 시설운영은 한국인이든 캐나다인이든 캐나다 정부가 제시하는 400가지 룰을 지켜야 한다.

- 요양원 년예산은 4백만 달러(한화 44억) 정도이고 주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은 3백만달러(한화33억원)로, 1인당 5500만원이 지원되며 인건비, 식비, 프로그램비, 시설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입소자들은 병원과도 연계되어 있고 캐나다 병원비는 무료로 국가에서 부담하며 치과는 본인이 보험을 들어야 한다.
- 현재 이 시설에는 60명이 입소해 있으며 대기자는 135명으로 입소신청은 지역사회보건센터(보건소)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센터는 자격여부를 판단하고 인정되면 요양원에서 최종입원을 검토한다. 현장을 둘러보니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한국음식과 최상의 장기케어를 받고 있었고, 의사, 간호사, 간병보조인들이 모두 한국인으로 언어도 통하고 음식도 한국식으로 제공하는 등 맞춤형돌봄 서비스로 입소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 주요서비스 내용은, 24시간 전문간호사 간호 및 간병, 주치의에 의한 정규진료 및 응급의료서비스, 다양한 오락 여가활동, 영양사에 의한 치료식이관리, 혈액검사 및 각종진단 서비스, 투약관리 재활물리치료 등서비스가 훌륭하며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출입시에도 보안시스템을 작동하고 있었다.
- 주정부에서는 감독관청을 통해 매년1회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며 예고없이 조사하고 미비한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하고, 그 부분이 시정되지 않으면 바로 보조금을 중단하고 폐쇄시키는 등 국가가 많은 지원을 해주는 반면, 감독부분이 엄격하다. 동 요양시설은 온타리오주에서 서비스부분 우수한 평가를 받는 등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 시사점 및 교훈

- 캐나다 정부의 많은 지원과 잘 발달되어있는 의료병원 체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요양원의 한사람 한사람 입소자들에 맞는 맞춤형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가정처럼 편안하고 서비스의 질도 높은 편으로 정부의 지도점검, 평가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 반면에, 한국은 요양원들이 양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고 정부의 관리감독이 느슨한 단점이 있으며 복지체계와 연계서비스의 질도 낮은편으로 이의 개선과 프로그램 등 지원도 강화해야 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이 없도록 철저한 시스템 감독, 평가가 있어야 하겠다.

온타리오 무궁화 한인요양원 방문



요양원 식당



요양원 거실

4 토론토 시의회 및 시청 신·구 청사

[방문개요]

- 일 자 : 2015. 4. 30.(목)
- 장 소 :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 양 식 : 인터내셔널 스타일, 빌조레벨 작품, 1965년 완공

□ 주요내용

1. 시 청사

(일반현황)

- 토론토 시청 신청사는 1965년 설계공모로 건립되어 두 개의 반원형 건물이 서로 마주보고 한가운데 돛형건물이 있어 하늘에서 조감하면 사람의 눈동자 형상이다. 이는 시민들이 무서운 눈으로 행정을 감시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 CN 타워와 함께 토론토의 상징이 되고 있는 현대적 감각의 시청은 20층, 27층의 높이가 다른 아치형의 건물로 나단 필립스 광장에 위치하고 있다.
- 한편, 고전적인 분위기 구시청사와 현재적인 분위기 신시청사는 이들 타워가 접시 모양의 의사당을 둘러싸서 보호하는 날개처럼 보이기도 하고, 시를 향해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며 1899년에 건립한 구청사는 현재 주법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중세 교회처럼 고풍스럽다.

(청사 내부)

- 청사 내부에는 많은 예술 작품을 설치하여 자칫 시 청사라는 딱딱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공간이 오히려 민원인의 거부감을 해소하고 친근한 곳임을 알리고, 건물 밖 호수는 겨울에 얼면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도록 개방하여 시청이 진정한 시민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로 방문시민의 이동이 편리한 출입문 설치를 볼수 있다. 이 문은 최초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전자 패드를 터치하고 장애인이 건물안으로 진입 후 반대편 전자 패드를 터치했을 때만 문이 닫히게 되어있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닫혀 문안에 끼일수 있는 기존의 장애인 이동 출입문 보다 안전한 문이 설치되어 있다.
- 청사에는 주변의 교통장애 유발로 인해 주차장이 없으며 청사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도록 전철, 지하철과 연계되어 있다.

2. 토론토 시 현황

(토론토 시의 역사)

- 온타리오주 토론토 시청은 본래 영국식민지였는데, 19세기 중반에 캐나다에 합병되었고 인디언어로 ‘만남의 장소’ 라는 의미이다. 온타리오주는 캐나다 10개주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으며 각종 산업이 발전된 상공업의 중심지이며 토론토시는 온타리오주의 수도이다. 특히 주민인구가 54%가 이민자(영어가 아닌 제3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인종적 편견이 가장 없는 곳으로 초기 이민자가 정착하기에 가장 편안하고 유리하다.
- 메트로폴리탄 토론토 광역도시의 인구는 토론토, 노스요크, 요크 등 3개도시로 약400만이며 토론토에 약10만명 이상의 한인교포사회가 형성되어 있다. 토론토는 몬트리올올림픽 이후 몬트리올 등에서 회사이전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주변에 신도시가 형성되어 성장하고 있다. 토론토는 캐나다 제1의 도시로 수도인 오타와, 몬트리올, 벤쿠버와 함께 캐나다의 대표적인 도시이다.

- 토론토에서 유명한 것은 토론토 대학으로 1927년에 설립된 토론토 법과대학은 북미최고 하버드대, 예일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의과대학 또한 유명하다 1976년 완공된 CN타워는 높이 553.33m로 탑으로는 세계 최고이며 토론토 시내 어디서든 보인다.

(시 의회제도 청취)

- 토론토시에는 한국인으로 8선의원인 레이몬드 조(한국명 조성준 78세)씨가 활동하고 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속으로 캐나다에서 매우 유명했다. 조의원은 교포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조의원의 일정으로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조의원 한국계 보좌관(Miss. jessica Kim)의 친절한 안내로 토론토 설명과 의원사무실을 견학 하였다.
- 캐나다 토론토시 인구는 261만명이고 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의원수는 44명으로 1인당 6만명이다. 우리의회와 관심사인 보좌관제도는 계약직 보좌관을 쓰는데 의원 1인당 22만불(약2.3억원)을 지원하고 몇 명을 쓸지는 본인이 알아서 고용하면 된다고 한다. 의원사무실은 비교적 협소하고 검소한 편이었다.

□ 시사점 및 교훈

- 앞으로 세종시 관내의 상징적인 건물들은 주민공모로 아이디어를 구하는 게 좋겠고, 신도심지역의 국립세종도서관이나 대통령기록관, 세종정부청사는 세종시의 아이콘으로. 역사성이 있는 건물로 남겨져야 하겠다.
- 의원 보좌관의 경우, 우리나라는 상임위원회에 의원별 정책지원 인력을 보강하거나, 일정범위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예산지원액의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토론토 시청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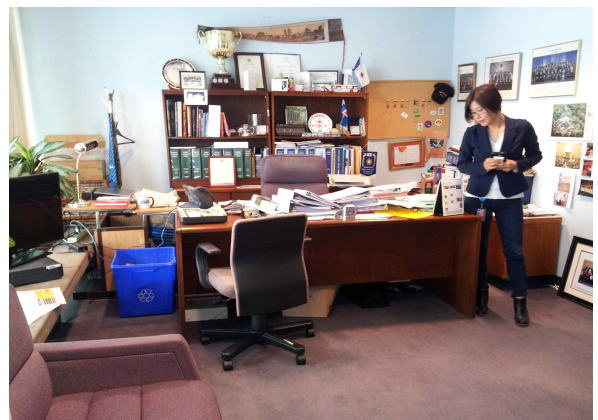
토론토 시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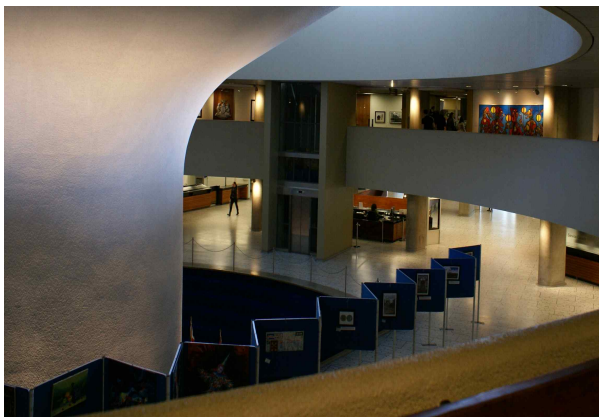
토론토 구청사(현재 법원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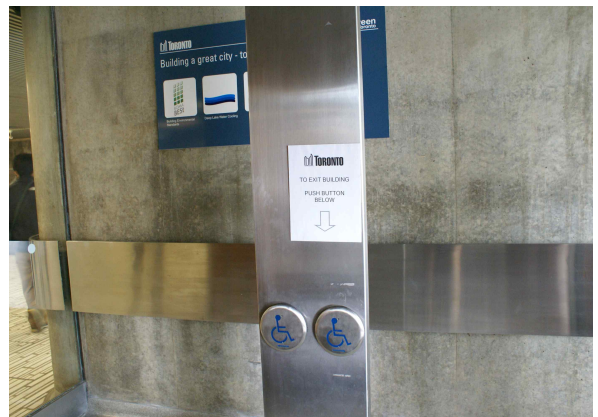
토론토의회 설명 청취



8선 조성준 의원사무실



미술품 전시한 시청



장애인 이용이 편리한 출입문

5 토론토시 디스틸러리 디스트릭 (Distillery District)

[방문개요]

- 일 자 : 2015. 4. 30.(목)
- 장 소 :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 주요내용

(양조장)

- 1832년에 시작된 이 양조장은 처음엔 풍차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한다. Gooderham과 Works가 공동투자하여 Gooderham&Works라는 회사를 차리게 되었고, 이 회사는 날로 번창하여 1880년대에는 몬트리올, 헬리팩스, 뉴욕, 부에노스 아이레스등의 남미까지 위스키를 수출하며 세계 최고의 양조장이 된다. 1990년까지 이곳에서 위스키를 만들었다.
- 이후, 영화 촬영장소로 사용되고 2001년 예술,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로 변화하게 되며 예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곳으로 탈바꿈하여 레스토랑과 커피숍, 상점, 아트갤러리, 웨딩촬영장소 등으로 사용하며 구석구석 볼거리가 다양한 지금의 디스틸러리 디스트릭으로 재탄생 되었다. 영화 시카고와 엑스맨도 이곳에서 촬영했다.

(도시재생 명소로 거듭남)

- 토론토의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인 감성아트센터로 변신한 디스틸러리 디스트릭에는 현대적인 것과 고풍적인 것이 적절하게 조합되어 전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인 느낌이 든다. 외관은 오래되고 고풍스러웠지만, 내부는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 시사점 및 교훈

- 우리가 세종시 구도심을 살리고 도시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청춘조치원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 다운타운 내 양조장 지역을 새롭게 재창조해 명소로 개발한 디스틸러리 디스트릭을 벤치마킹하여 조치원역 주변과 구도심 및 대학가 등을 재생사업에 참조할 필요가 있다.

토론토 디스틸러리 디스트릭 방문



개발전 모습



개발후 거리



야외 카페



상점내부

6 뉴욕주 나이아가라폴스 시청 및 시의회

[방문개요]

- 일 자 : 2015. 5. 1.(금)
- 장 소 : 미국 뉴욕주 나이아가라 폴스 시티
- 745 Main Street, Niagara Falls, NY 14302-0069
- 면담자 : 다이스터 시장 (담당자 : Bridgette Myles)

□ 주요내용

1. 시 현황

- 나이아가라폴스시는 미국 북동부, 뉴욕주 북서부의 관광·휴양 도시로 인구는 6만 2천명이다.
- 나이아가라 폭포 부근에 위치한 전기공업의 중심지로 전기화학 제품 및 알루미늄제품·미사일부품·축전기 등을 생산하며, 주요 교육기관으로 나이아가라 대학이 있다.

2. 미국의 지방자치제도

- 미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마다 역사성이 있고 지역에 따라 다양한 기관구성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시장-의회체제]와 [시지배인-의회체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 자치단체의 주요 특징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 개념은 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넓은 범위의 지방분권주의, 주민참여의 강조, 의회중심주의를 들 수 있다.

(둘째) 시장-의회형의 경우 의원과 단체장을 모두 주민이 직선하며, 시지배인-의회형의 경우 의회에서 시지배인을 임명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의례적인 대표기능을 갖는 시장이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되기도 한다.

(셋째) 주민발안, 주민투표, 공직자 소환제도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널리 채택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 또한, [시장-의회체제]와 [시지배인-의회체제]의 특성을 비교 관점에서 살펴보면, 전자는 인구 구성면에서 이질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대도시에서 많이 운영되고 소선거구제와 정당참여의 선거를 허용하고 있는 곳이 많다. 후자는 중소도시 (인구 2만5천 ~ 25만명), 특히 동질적인 성격을 지닌 자치단체에서 많이 발견되며 대선거구제로 소수의 의원을 선출하고 비정당선거를 채택하고 있다.

(지방자치 유형)

① 시장-의회형(Mayor-Council form)

- 시장-의회형은 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장과 의원들이 각각 집행 기관과 의결기관을 나누어 맡아 양 기관이 시민에게 각각 책임을 지는 전형적인 기관구성 형태로서, 대다수(54%)의 시자치단체가 시장-의회형 또는 여기서 약간 변형된 기관구성을 지니고 있다. 주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나 2만 5천명이하의 소도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다.

② 약시장-의회형(Weak mayor-council form)

- 약시장-의회형은 정부권력이 한 명의 시장에게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기관구성 형태로, 여러 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과 행정운영에 대한 감독권을 지니고 있다. 시장은 시민에게 의해 선출되지만 인사권, 거부권, 행정권의 행사 등에 많은 제약을 받으며 시장외에 많은 공직자들(재정관, 검사, 전문위원회위원)이 시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범위가 매우 축소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의 기관구성은 인구 1만명 이하의 소도시에서 많이 발견 (예외:시카고)되며, 규모가 큰 도시의 경우 많은 수의 의원(50명 이상)으로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③ 강시장-의회형(strong mayor-council form)

- 강시장-의회형은 일반적으로 시장과 의원들만이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조를 단순화시키고 조직규모를 축소시키면서 약시장-의회형에 비하여 시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킨 기관구성형태이다. 여기서는 시장에게 지방행정에 대한 전적인 책임과 통제권을 부여함으로써 시장은 부서장에 대한 인사권, 예산안 제출권, 의회의결 거부권 등을 보유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내·외부에 있어서 강력한 정치적 리더쉽을 행사하고 있다.
- 이러한 기관구성형태는 대부분의 대도시와 많은 소도시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대도시의 경우 시장이 행정적인 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에 전문적인 수석행정관(chief administrative officer)을 시장이 임명하여 부서장의 감독이나 예산안의 준비, 인사상의 문제 등을 담당케 하고 있다.

④시지배인-의회형(Council-Manager form)

- 시지배인-의회형은 의회에서 선임되는 시지배인에게 모든 행정 권한을 위임하는 기관구성 형태으로써 시지배인은 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책임지고 능률적으로 집행하는 일을 담당하며, 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부서장에 대한 임명·파면 등의 인사권을 지니는 실제적인 행정이 총책임자가 된다.
- 기관구성에서 시장은 주민에 의해 직선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의원들 가운데 선출(운번제로 운영되거나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얻은 의원)되며, 어떤 경우든 의례적이고 명목적인 기능만을 수행한다. 따라서 시장은 누구를 임명하거나 파면하는 인사권을 지니고 있지 못하며, 의원을 겸직하지 않는 한 시지배인에 대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 의회는 정책결정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전문행정가인 시지배인의 선임을 통해 행정을 책임지고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대개 5~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소규모 의회로서 의원들은 보통 선거구제와 비정 당표방식에 의해 선출되고 있다. 이러한 의회-시지배인형 기관구성 형태는 효율적인 경영방식을 표방한 가운데 기관운영과 정치·행정의 분리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주로 인구 25만명 이하의 중소도시와 중산층을 중심으로 지역구성원의 동질성이 높은 교외지역에서 주로 채택되어 왔다.

3. 나이가라가 폴스 시티의 연수결과

(시의 행정체제)

- 미국의 자치정부 행정체제는 시(city), 카운티(county), 주(state) 가 있고 필요시 광역행정을 수행하는 광역의회(Regional council) 가 있다. 즉 뉴욕주-버팔로카운티-나이아가라폴스시티로, 그 중간에 광역 의회가 있다. 나이아가라폴스시는 시장-의회형을 유지하고 있다.
- 나이아가라폴스시티는 시장도 선출하고 시의회 의원도 4년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장은 시의 행정을 총괄하는 수석집행공무원(Chief Executive Officer)이다. 기초단체인 시에서 모든 지방행정이 집행되고 있고 행정관(Administrator)은 우리의 부시장 격이며 직속의 보좌기관인 총무관, 인적자원과장, 재무과장, 정보기술과장 등을 두고 있다. 행정관의 관리는 받지만 자율성을 갖고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도시계획과장, 건설과장, 공원관리과장이 있고 경찰서장, 소방서장이 있다.
- 광역 행정조직인 버팔로 카운티는 시의 부족한 부분을 커버한다. 산하의 시의 시장과 대표들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가 있고 카운티 의원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가 있으며 주로 토지가액을 산정하는 평가자, 사법, 치안담당판사, 검사, 카운티 경찰이 있고 선거기능도 담당한다. 의회는 2주마다 회의가 열리고 시장은 2명이상의 의원을 한번에 못 만난다.

4. 다이스터시장(Paul A.Dyster)과의 면담

- 이 지역은 프랑스, 영국, 미국 순서로 점령되었던 곳으로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수력발전소를 중심으로 교역의 중심이 되었던 곳으로 캐나다는 호텔과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이 발달하였으나, 미국은 변변한 숙박시설이 하나도 없이 미개발 지역으로 남았다.
- 1960년대는 인구 10만명 이었지만 기업이전으로 쇠퇴기를 맞이하여, 5만에 불과하게 되자, 인구증가 시책으로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개발을 시작함으로서 나이아가라를 중심으로 호텔과 식당, 카페, 쇼핑몰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관광개발 뿐 아니라 주민들 일자리 창출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
- 시청은 법원, 시민들의 공청회 장소로도 활용되며, 누구나 출입할 수 있으며 나이아가라 시티는 월1회 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매년 지구의 날(4.22일)에 자원봉사자들과 청소를 실시한다, 1년에 8백만명 관광객이 오며 1인당 400불 정도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청사부지가 넓어 주차문제는 없고, 건물난방은 스팀방식 유지한다.
- 시장은 4년임기, 5명의 의원과 일을 같이하고, 2주에 1회 회의하며 시장, 의원5명, 시민누구나 참여하며, 주1회씩 시로 들어오는 모든 문제들은 토론을 통하여 안전제출 후 2주에 1회씩 회의를 실시한다.

□ 시사점 및 교훈

(자치행정제도 개선)

- 우리나라 자치제도의 획일화된 대립형 강시장제를 유연하게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기관구성으로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치체제의 개혁이 필요하고, 대한민국의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강시장제는 이제 보완이 필요하며, 세종시의 경우 단층제로서 기관구성의 차별화를 할 필요가 있다. 워싱턴D.C. 처럼 행정수도가 안고있는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시장을 겸임하거나 위원회형 등 다양한 방안으로 효율적인 체제를 도입하는 등 금기를 깰 필요가 있다.

(미국 행정가들의 선진의회)

- 시장 집무실이나 의원사무실이 비교적 작고 검소하며 비품이나 집기들은 오래되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시장이 직접 집무실과 의원사무실 등을 안내해 주는 등, 실용적인 모습을 배웠다.
- 공사구분이 뚜렷하여 공공기관이 받은 기념품이나 선물은 반드시 공공장소에 비치하고 있고, 우리시도 청사이전시 의회현관 또는 상임위원장실에 기념품전시실을 설치하고, 또한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정부청사 상징물 등)을 제작하여 우리시를 찾는 이나, 우리가 타시도를 방문시 선물로 제공하여 우리시 홍보 및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다.

나이가가라 폴스 시청·시의회 방문



시정현황 설명



시장과 기념촬영



의원 집무실



시방문 기념품 전수

7 워싱턴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방문개요]

- 일 자 : 2015. 4. 28.(화)
- 장 소 : Washington D.C. , 링컨기념관 뒷편

□ 주요내용

- 한국전 참전 용사 기념비는 미국인들의 한국전 참전의 뜻을 길이 되새기고자, 워싱턴의 내셔널 몰 서편 웨스트포토맥 공원 링컨 기념관 뒤쪽에 세워진 조형물로 미국 워싱턴D.C에 있다.
- 1995년 7월 27일, 한국 대통령 김영삼의 방미에 맞춰, 미국 대통령 클린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된 이 기념물은, 성조기 · 벽화 · 조상(彫像) · 비명석판(碑銘石板) · 회고의 연못 · 유엔 산책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약 8,903㎡의 부지에 마련된 조형물의 핵심은 군인들의 조상과 벽화로 V자형으로 늘어선 실물크기보다 약간 큰 19명의 군인상은, 육군 · 해군 · 해병 · 공군으로 백인 · 흑인 · 히스패닉계 미국인 등 인종별로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이것은 한국전에 참전했던 당시 제25보병사단 출신 인사들이 1985년 기념비 건립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미국 의회의 전쟁기념물위원회(ABMC)의 승인을 받아, 1992년 기공식을 갖고 이듬해 4월 공사에 착공한 것이다. 그러나 총공사기금 1,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한국 대기업들의 현지법인들이 각출한 것이다.
- 19명의 전사와 벽에 투영된 19명의 전사, 그 사이를 가르는 38선이 된 벽 앞에 우리 조국의 가슴아픈 역사를 다시한번 새기게 되었다.

사망미군 36,940 UN 2,725 / 실종미군 3,737 UN 363

포로미군 4,439 UN 1,343 / 부상미군 92,134 UN 8,123 *

*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알아봅시다!> 6.25전쟁사(3권), 2005, p.144.

-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켜달라는 부름에 대한 미국의 아들, 딸들을 기리며…” 미국 워싱턴 시내에 있는 한국전참전기념 공원에 새겨진 글귀다.
- 이 기념공원에는 6.25의 참상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미군 병사 19명의 전투장면을 동상으로 새겨 동이트고 석양이 질때까지 동상의 그림자가 공원주변을 맴돌면서 그림자를 포함한 38명의 미군병사모습에서 38선을 상징토록 했다.

□ 시사점 및 교훈

- 기념비가 워싱턴 공원에 위치함으로서, 미국인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6.25전쟁의 참혹함을 알리고, 분단된 한국의 현실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일행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들을 참배하고, 감사의 인사를 했다. 공원 외벽에 새겨진 {자유란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 freedom is not a free}이란 글귀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워싱턴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방문



워싱턴 한국전 참전기념비



연수생일동 참배 및 묵념

8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위안부 기림비

[방문개요]

- 일 자 : 2015. 5. 4.(월)
- 장 소 :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팰리세이즈 파크

□ 주요내용

(지리현황)

- 팰리세이즈파크시(약칭 팰팩시)는 뉴저지주 동북부의 버겐군에 속하는 자치구(borough)로서, 인구는 2만여명으로 그중 한국계가 51.5% 거주하며, 미국에서 한국계 비중이 가장높은 도시이다.(시장과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이중 한국인은 2명이다.) 의원은 매년 2명씩 선거로 교체(개원)되고 의장이 캐스팅보트를 하는 의사결정구조이다. 의장은 돌아가면서 1명이 의장과 시장을 겸임하는 기관통합형이다. 의장은 다양성을 위해 의원중에서 뽑는다.

(기림비 설립개요)

- 팰팩시의 기림비는 2010년 10월 건립되었으며, 미 지방정부가 주도한 최초의 기림비로 일제강점기에 희생된 한국인 위안부를 추모하고, 인권의 중요성과 일본의 만행을 전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상징물이다.
- 일본군에 인권을 유린당한 한국 등 아시아 여성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기림비로 시립도서관 옆에 있어, 누구나 쉽게 보고 찾을 수 있으며, 일본의 거듭된 철거요구에도 시당국은 위안부 기림비는 전쟁과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에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 현재 미국에는 10개소의 위안부 소녀상 및 기림비가 있으며, 일본의 말뚝테러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인들에게는 순례코스가 되고 있고 뉴욕을 찾는 많은 한국인들이 방문하고 있다.

□ 시사점 및 교훈

- 우리의 역사알리기를 위해 애쓰는 동포들 에게 감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저버리고 인권을 짓밟아온 일본의 만행을 외국에서 알리는 현장을 통해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다.
- 국내에도 기림비 건립에 국민적 동참을 이끌어내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를 확대해 나가야겠다.

팔리세이즈 파크 위안부 기림비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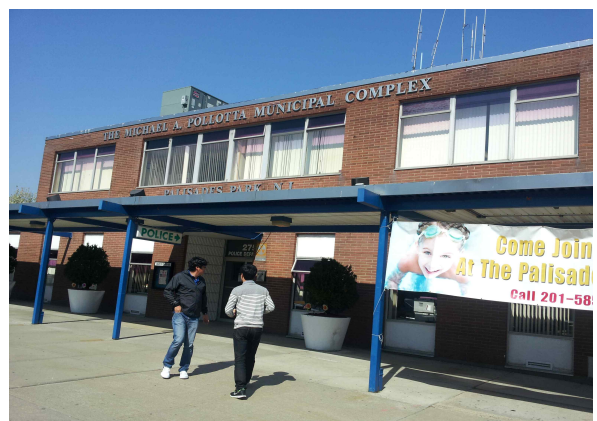
도서관옆에 위치한 위안부 기림비



연수생일동 참배 및 묵념



팔리세이즈파크 방문



청사 외부

IV

기타 도시문화체험 결과

□ 미 국

(미국의 교육)

-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고,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안전을 생활화하는 등 기본에 충실한 미국은 자유로움 속에서도 질서가 있어 보였다. 학생들에게 정치는 가깝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유치원에서 초·중·고교생까지 워싱턴D.C.를 네 번 견학하도록 제도화 하는 등 세계 정치 일번지에 가서 보고 지도자로 성장하고 역사에 자부심을 갖도록 산교육을 생활화한다. 고등학교 4년간은 자원봉사 800시간을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때마다 한국의 교육을 배워오라고 홍보한다.

(뉴욕 주택가 공원묘지)

- 뉴욕 캐네디 공항에서 뉴욕중심가로 이동하는 중 도로변 주택가에 자리잡은 공동묘지는 우리와는 달리 넓은 영토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인근에 묘지를 조성해 놓았는데 표석을 세운 것은 기독교, 누운 것은 천주교 표시로 주택가 인근에 조상을 섬기며 자주찾는 공원개념의 장묘문화를 볼 수 있었다.

(뉴욕, 워싱턴D.C. 자연친화 도시)

- 잘 정돈된 자전거 거치대와 드넓은 공원은 자연친화 도시를 지향하며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며 녹지 공간을 확장하는 세종시에 모범이 되는 시책으로, 권장할 만한 시책이다.

(미국의 생활문화)

- 미국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문화다. ‘Excuse Me’ 로 다 해결되고 ‘죄송합니다’ 를 입에 달고 살며 ‘You are Welcome’ 도 자연스럽게 나온다. 어려서부터 남을 배려하고 서로가 신뢰하는 좋은 문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문화로 생각된다.
- 또한 CCTV가 없다. 100킬로미터 규정속도에서 5킬로만 초과해도 스티커를 발부받고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등 법과 질서가 엄격하며, 법을 어긴자는 누구든 제재를 받는다.
- 미국은 개인주택의 담장이 없는데 그 이유는 충기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단침입을 하면 바로 쏜단다. 미국의 음식은 호텔 조식이 베이컨, 빵, 햄 등이고, 점심이나 저녁은 우리 뷔페식으로 음식문화상 비만한 사람들이 많아 미국의 미래는 비만과 건강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쓰레기 처리)

- 미국인들의 생활쓰레기는 별도의 분리수거 없이 혼합해서 버린다.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비용을 지불하고 다른나라(남미 등)에 운반하여 처리된다고 하는데, 지구를 보호하고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도 재활용과, 음식물, 일반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된다.

(뉴욕 철도공원 하이라인 파크)

- 구 철길을 철거하고 신도시를 건설하자는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철길을 공원으로 재생하여,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관광객들이나, 젊은층이 즐겨찾는 새로운 명소로 자리 매김한 하이라인 파크를 보면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와 연계해 구도심 재생사업에 벤치마킹 해야 할 사항이다.

(뉴욕 자유의 여신상)

-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년을 축하하여 변함없는 우호의 표시로서 선물한 것으로 맨하탄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과 더불어 뉴욕을 상징하는 조형물로, 프랑스의 에펠탑처럼 뉴욕의 상징물을 보러오는 세계각국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점에서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 세종시에 시사점이 크므로, 우리시도 호수공원 등에 세종시를 상징하는 조형물(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고, 세종시의 중심에 랜드마크를 건설하여 세계적인 관광자원화 할 필요가 있겠다.

□ 캐나다

(수자원의 나라)

- 캐나다는 자원이 풍부한 나라로 지구상 먹을수 있는 물의 3분의 1을 갖고 있고, 국토면적은 세계2위로 광활한데 인구는 3,500만명 정도로 관광수입이 국가재정의 30%가 되며 산림이 울창한 캐나다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학과는 원예과이다.

(온돌레이크)

- 온돌레이크지역은 주민들이 미국독립전쟁 당시 주류파들로 선대들이 영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에 정착하여 복숭아, 포도농사를 지으며 단지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지역으로, 광활한 농장과 전원주택 단지를 지나 와이너리 아이스 와인 공장을 견학하였다. 아이스 와인 주재료인 포도는 한겨울인 1월에 수확하는데 포도를 나무에 둔 채 대관령 황태처럼 겨울에 얼리고 녹이고를 반복해 맛이 뛰어나며 서울의 백화점에 한병에 6만원 선으로 거래된다.

(작은교회)

- 인근에 복숭아밭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작은 교회가 있는데 6명이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공간으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었으며, 온타리오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관광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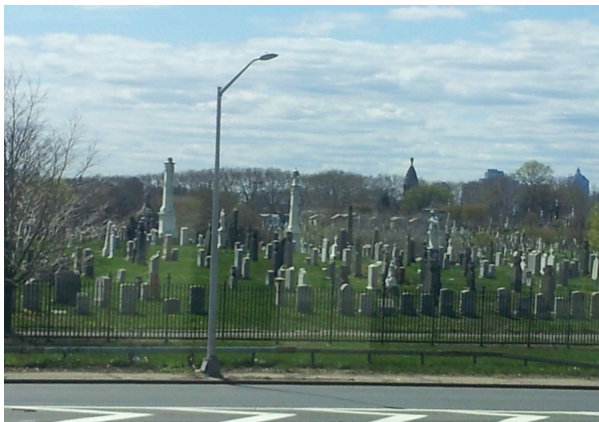
방문 사진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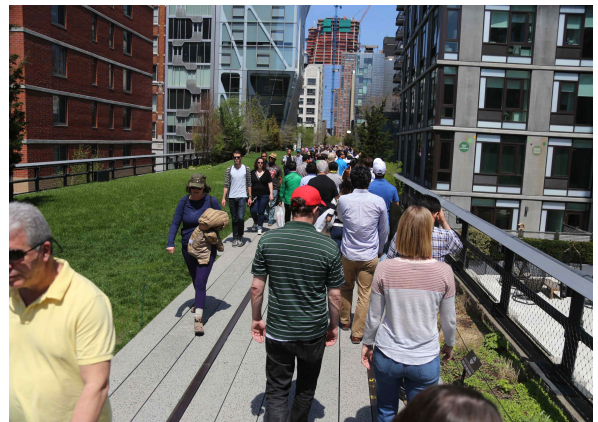
장애인을 배려하는 꽃시계(온타리오)



학생 우선배려 스쿨버스



미국 주택가 공원묘지



뉴욕 하이라인파크를 찾는 관광객들



워싱턴D.C. 항공우주 박물관



미국 도심내 자전거 주차장